

광주 산하기관장 펼침막 '입방아'

광주TP원장, 총선 앞둔 정치적 행보?

"시청 압수수색 등 어수선한 상황" 부정적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광주시 산하 기관장이 자신의 얼굴을 넣은 홍보 펼침막을 수십장 내걸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9월 30일 지역장가 등에 따르면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원장은 지난달 27일 광주 수완지구와 첨단지구 등에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출범 환영'이라고 쓴 펼침막 25장을 내걸었다.

펼침막 오른쪽에는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성진'이라는 표기

와 함께 김 원장의 사진도 큼직하게 들어갔다.

펼침막은 김 원장이 사비를 들여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산고 끝에 광주형일자리가 출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펼침막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와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얼굴까지 들어간 펼침막에 대해 감지 않은 시선

을 보내고 있다.

김 원장이 자천타천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광주 광산구를 예비 후보군이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광주시정'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부정적한 처신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 한 관계자는 "홍보 펼침막을 내건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자신의 얼굴을 크게 걸었다는 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펼침막은) 총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청년 일자리가 생겨 너무 기뻐서 그랬다"며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10월18일까지는 축하 펼침막 게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성진 원장은 전남 고흥이 고향으로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를 거쳐 영국 리즈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 공직에 첫 발을 내딛던 뒤 27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며 지역경제국장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전남제신정장 등을 역임했다.

논란 속 전남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전남지역에서 시행될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9월 30일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태풍 소식에 추수 서두르는 농가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북상 소식이 전해진 9월 30일 오후 경북 칠곡군 동명면 논에서 농부가 추수를 서두르고 있다.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 앞에 지난 '제17호 태파(TAPAH)'의 피해로 쓰러진 벼가 상흔이 되어 그대로 남아 있다.

5년간 전남서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입은 문화재 15개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호우나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모두 15개로 집계됐다.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지진, 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경북, 경남에 이어 제주와 전남이 세 번째로 많았다.

광주를 비롯한 인천, 대전, 세종은 피해 문화재가 단 1건도 없었다.

우리나라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재는 4754건 중 총 166건이 재난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전남의 피해 문화재는 15건(9%)으로 확인됐다.

166건 가운데 재난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66건(39.8%)에 달했다. 이어 경남 20건(12.1%), 제주와 전남은 각 15건(9%)이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재난문화재 복구에 지원된 금액은 전국적으로 94억8300만원에 달했다.

전남은 문화재 복구를 위해

8620만원이 투입됐고 경북 35억, 경남 13억, 제주 6700여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시 훼손·유실 등에 따른 긴급보수나 복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정작 문화재에 필요한 재해예방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 특성상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완전한 복구가 힘든 만큼 예방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순천시 현직 경찰관 숨진 채 발견...수사 중

순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월 30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5분쯤 순천시 삼산동 한 주택에서 이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경위는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의 가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만취운전 40대 앞차·뒤차 '쌍쌍'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7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5)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급히 후진을 하다 도로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도 접촉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취소수치로 측정됐으며 B씨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성희롱한 남성 폭행한 20대女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술집에서 자신을 성희롱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20·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자신에게 "술집 여자처럼 생겼다"고 말한 B씨(35)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술에 만취한 상태로 A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성희롱 피해자 신분일 수 있었는데 B씨를 폭행해 기해자 신분이 됐다"고 말했다.

화장실 앞서 여성 묻지마 폭행...남성 추적 중

여자 화장실 앞에서 30대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께 일산동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 앞에서 30대 여성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20대로 보이는 남성과 마주쳤다.

이후 이 남성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A씨를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맞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화장실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상가 주변 CCTV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다.

화학공장 작업자 독성물질 흡입 1명 중상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8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독성물질인 황화나트륨을 흡입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중상, 또다른 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옥내 탱크(22t)에 보관된 황화나트륨을 이동식 탱크(1t)로 옮기는 과정에서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